

돼지고기 소고기를 넘어 최대치 기록할 듯

- 심각한 돼지 바이러스로 인해 줄었던 돼지고기 공급량 및 가격이 다시 정상 궤도를 달리며 소고기를 넘어서 좋은 기록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 USDA는 2012년도 가뭄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소 농가들로 인해 소고기가 22년 만에 최악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2015년도에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정부는 12월 1일에 마감한 마지막 분기에 1998년 이후 가장 큰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수치이다. 작년부터 돼지수가 2% 증가했다.

패스트 푸드 햄버거를 널리 알린 미국의 소고기가 그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20년간 닭고기가 소고기를 월등히 제치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고기였고 이제는 돼지고기 생산이 소고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심각했던 바이러스를 이후로 돼지생산은 다시 증가했으며 그와 더불어 최고치를 기록한 소고기 가격 및 사료가격 감소로 돼지고기 증가요인 중 하나다.

2014년도에 돼지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시에 공급부족으로 인해 베이컨 및 폭찹(pork chop)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돼지수가 많아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다.

한 돼지농가는 지난 해 6월 바이러스로 인해 2,400마리의 돼지를 잃었지만 지금은 전부 건강하여 올 해 돼지고기 공급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혔다.

2년여 동안 옥수수 및 콩 작물이 크게 성장하여 사료가격이 값싸졌고 그로인해 돼지의 크기가 더 커질 것이다.

1월12일 발표한 USDA의 자료에 의하면 돼지고기 생산은 올 해 증가하여 239억 8백만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소고기는 1.7% 감소하여 239억 6백만 파운드, 그리고 닭고기가 큰 폭 증가하여 392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이 정상궤도를 찾아가면서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1월 돼지가격

은 11%감소하였고 이는 1986년 이후 최고 감소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PEDv(돼지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며 공급량이 둔화되거나 소비자 수요가 더욱 증가할 시 가격감소가 지속될 지도 미지수다.

돼지고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가격이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며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달러강세로 인해 수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 food dive 및 Bloomberg. 02.02.2015